

# 강진 보은산 테마공원, 생활밀착형 명품 공간으로 거듭난다

### 사계절 꽃단지·생태연못 등 체험·휴식공간 조성 생태연못 3개소·유리온실 1개소 내년까지 마무리

강진군이 보은산 일대에 군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힐링공간인 '보은산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 15일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한 주요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산 테마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기념 식수식을 가졌다. 보은산 테마공원은 국비 18억 원 포함 총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 2ha의 면적에 사계절 꽃단지, 생태연못, 산책로, 양묘체험 온실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해 1월에 착공했다. 지금까지 수목 생육 개선을 위한 유용토 반입, 맹암거·자연석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수국 3,000본을 시작으로 동백나무, 느티나무 등 총 11,728본의 수목식재도 완료했다. 또, 올해 말까지 건강산책로 조성과 수목 추가 식재를 마무리하고, 생태연못 3개소와 양묘 체험장(유리온실) 1개소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보은산 생태공원을 생태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계모란공원, 보은산 연꽃단지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휴식·힐링·체험이 가능한 사계절 명품공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보은산 테마공원을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해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 농수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리컴퍼니·농업회사법인 남도인과 공동홍보 판매)

해남군 지역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는 16일 유통 전문기업인 (주)리컴퍼니와 농업회사법인 (주)남도인과 해남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와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주)리컴퍼니는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농업회사법인(주)남도인은 대형마트, 슈퍼, 아울렛 등 대형거래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과 이들 업체는 사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로서 농수산물 판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주)리컴퍼니는 의료, 패션 등 온라인 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

체로,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관리, 온라인 홍보, 교육, 컨설팅 등 고객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주)남도인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수도권 직거래 장터 개최, 신선 제철 농수산물 홍보와 산지정보 교환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대행한다. 영호남 농수산물 교류 증진을 위해 지자체, 기관, 단체 공동 상생장터 개최, 슈퍼, 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거래처를 통해 해남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온오프라인 최고 전문성을 갖춘 (주)리컴퍼니와 남도인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해남의 품질 좋은 농수특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마련해 해남 농수특산물이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명품햅쌀단지 첫 모내기

밤맛 뛰어난 신품종 조명1호 재배...올해 예상 생산량 430톤



완도군은 명품 햅쌀 단지 65ha를 조성하고 지난 19일 노화읍 단지(이포리)에서 첫 이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모내기를 한다.

군에서는 명품 햅쌀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신품종 '조명 1호'를 도입했다.

조명 1호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조생종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생산성이 높고, 밤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3년간 재배 실증 평가를 통해 조명 1호는 밤맛이 뛰어나고, 재배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올해 노화, 고금, 약산 등 총 65ha에 조명 1호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 430톤을 생산하여 전국 햅쌀 시장에 선을 보일 계획이다.

최근 전남은 수확기에 잦은 태풍으로 쌀 수량 및 품질 감소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은 수확기에 태풍을 피하고 농

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조명 1호를 4월 중순경 이앙하여 8월 중순경에 조기 수확을 추진한다.

한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복선)에서는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모판 관주 1회 병해충 방제 기술을 지도·실천하고 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고은 연구사에 따르면 "완도군은 난지성 기후 후,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해양성 기후와 더불어 해조류 액비, 1회 방제, 1회 시비 기술 등 완도군만의 농법을 활용한 명품 햅쌀을 생산하여 국내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 진도군, 12억 투입...친환경비료 2만t 공급

###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진도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2억원을 들여 친환경비료 2만t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비료는 땅심 등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을 작물별 파종시기에 따라 공급한다.

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여 토양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며, 올해 8억5,000만원을 투입해 3,737농가에 1만8,268t을 공급한다.

올해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포당(20kg)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400~2,000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석회 공급을 통해 농작물 생장을 돕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해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움을 준다.

3억2,000만원을 투입해 규산질과 석회질, 패화석 등을 596농가에 2,272t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작물별 생산 시기에 맞춰 고품질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고 적기에 살포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장흥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작업 안전교육 추진

장흥군은 지난 19일 천관양파영농조합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을 비롯해 최영수 교수의 농작업 안전교육, 장흥소방서의 예방 안전교육, 임미란 소방위의 소방·응급 안전교육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 향

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영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향후 안전성·편리성 등을 고려한 후 농업인들의 요구에 알맞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유해 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작업 능률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